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주년
건설을 이끄는
정책 리더 RIC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시장동향 및 전망

건설시장

(26년 3분기) 동행지표를 중심으로 회복 강도와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
(26년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소폭 개선이 기대되나, 회복세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

전문건설시장

(26년 3분기) 하도급을 중심으로 계약액이 증가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
(26년 4분기) 공사비 안정화가 전문건설업 업황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

주택시장

(26년 3분기) 주택공급 선행지표의 부진 속 서울 중심 가격상승 압력 지속
(26년 4분기) 주택시장 소비심리 회복 속 임대차시장 중심으로 가격 강세 전망

이슈 진단

1.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과 향후 건설공사비지수 전망

석유화학류와 철강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향후 건설공사비는 상승폭 둔화에도 높은 비용부담이 지속될 전망

2. 지방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시장 양극화

최근 건설시장은 지역 간 건설수요 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 발생
SOC 발주, 미분양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방 건설수요 복원이 중요

3. 8·13대책 주택공급 확대가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점검

8·13대책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착공·수주 회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인허가 감소·금리 부담·지방 미분양 등으로 단기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

시장동향 및 전망

거시 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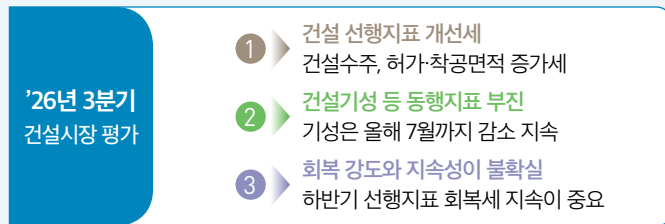
- 한국은행은 수정 전망(2026.08.27.)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
 -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건설투자는 예상보다 부진하여 상반기 -1.5% 역성장한 데 이어 연간으로도 0.2% 성장에 그칠 전망
- 이란전쟁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우려로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글로벌 금리는 상방 가능성이 큰 상황
 - 여기에 AI 투자 속도 조절,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미국의 통상 압력 등은 우리 경제의 지방 하방 위험 요인

구분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경제성장	-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투자 증가세 확대 - 중동지역 긴장 완화 및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 IT 호황의 여타부문 파급효과 확대	- 고유가 장기화와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 - 美 통상 압력 및 관세정책 확대
물가	-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 수요측 물가압력 확산	- 유가 및 환율 하락 폭 확대 -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건설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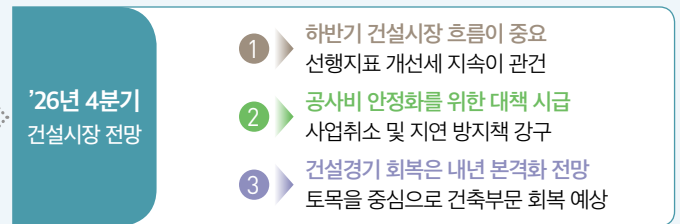
2026년 3/4분기 동향

- 선행지표의 반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동행지표 중심으로 회복 강도와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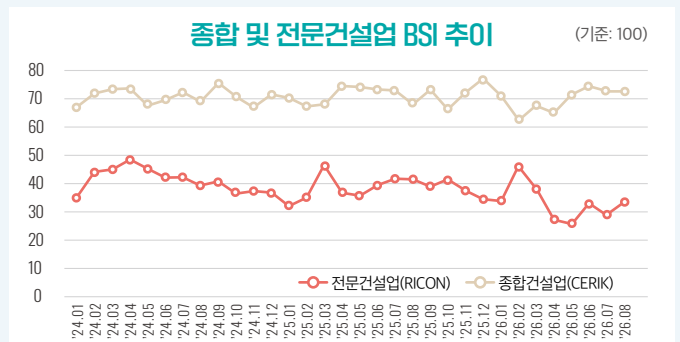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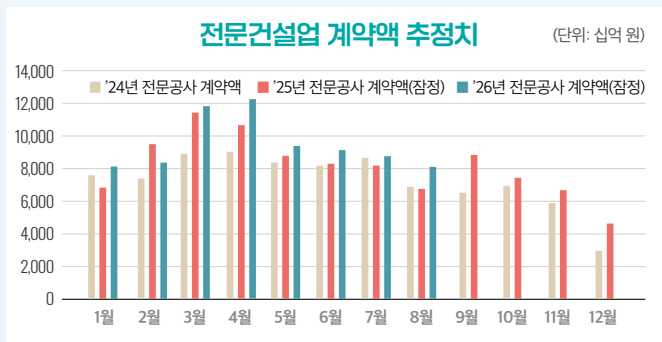
2026년 4/4분기 전망

- 연말로 갈수록 건설경기 개선이 기대되나, 회복세는 2027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전문건설 & 생산요소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체 건설수주 증가 영향으로 하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양호한 상황
 - 그러나, 공사비 부담, 생산체계 불확실성 등에 따라 실제 회복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
-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최근 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주택시장

2026년 3/4분기 동향

- 공급대책 효과의 가시화 지연 속 서울 중심으로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아파트 매매시장	서울 주도 상승세 지속
아파트 인허가·착공	공급 선행지표 부진 지속
총 합	매매·임대차 동반 강세 지속 공급 시차로 단기 효과 제한

2026년 4/4분기 전망

-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임대차가격 강세 지속 전망

아파트 임대차시장	임대차가격 상승 지속
주택시장 소비심리	가격상승 기대 확산
총 합	매매·임대차 동반 강세 전망

건설시장

2026년 3/4분기 건설시장: 선행지표의 반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동행지표 중심으로 회복 강도와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

- 2026년 7월까지 발표된 건설지표는 반등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회복 강도와 지속성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평가
 - 금액기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7월 누계 15.8% 증가했으나, 6월과 7월 하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은 불안 요인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3년 이후 장기간 부진했으나, 7월 49.2% 급증하며 누계 기준 1.4% 증가로 전환
 - 물량기준 선행/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은 상반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7월 16.2% 감소하며 누계 증가율은 4.5%로 축소
 - 금액기준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작년 16.5% 급감한 가운데 부진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면서 7월까지 5.1% 감소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아파트 분양물량은 올해 7월까지 13.2만호이며, 작년 동기간 9.8만호에 비해 3.4만호 증가한 상황
 - 수주, 허가, 착공, 분양 등 일부 선행지표의 반등은 감지되나, 동행지표인 기성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
- 건설투자가 5년간(2021~2026년) 역성장한 가운데 올해까지 건설경기의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
 - 올해 8월 한국은행과 KDI의 수정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각각 0.2%,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

주요 건설지표 동향

(전년동기비, %, 만호)

구 분	2023년	2024년	2026년	2026년					
				1/4	4월	5월	6월	7월	7월 누계
건설수주(경상)	-18.3	10.8	4.9	30.7	58.4	70.3	-17.8	-34.0	15.8
건설기성(불변)	7.8	-4.6	-16.5	-6.1	-6.6	-3.7	-4.3	-3.2	-5.1
건축허가면적(연면적)	-23.1	-9.0	-10.5	-5.0	-0.2	-12.6	-5.2	49.2	1.4
건축착공면적(연면적)	-32.0	6.7	-12.2	9.7	-5.0	18.9	15.9	-16.2	4.5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21.1	25.0	21.8	3.9	2.6	2.5	2.3	1.9	13.2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2026년 4/4분기 건설시장: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경기 개선이 기대되나, 회복세는 2027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건설경기는 일부 회복기대에도 불구하고 동행지표를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어려움이 여전
 - 상반기 일부 선행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①기저효과와 영향, ②공사비 상승에 따른 명목금액 증가, ③공공부문 조기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 선행지표 개선의 지속과 동행지표 반등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4분기까지 체감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
- 2027년 이후 건설경기는 공공·토목부문 활성화에 더해 민간·건축부문도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12.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하고 국토부 예산도 69조원으로 확대하여, SOC 투자와 GTX·신공항·물류 인프라·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토목부문 건설투자를 본격 확대할 계획
 - 건축부문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3기 신도시·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생산·연구시설,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연관 건축수요 전반의 투자 확대가 기대

2027년 이후 건설경기 회복 기대요인

토목 부문 (공공 중심)	재정투자 확대	교통 인프라 확충	공항·물류 인프라	지역 균형발전
	- 내년도 SOC 예산 전년 대비 증가 -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 GTX 등 광역철도망 - 고속도로망 확충 - 항만·물류 인프라 - 노후 인프라 개량 및 안전투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 - 인천공항 4단계 등 공항 인프라 확충 - 항만배후단지 개발 - 물류 네트워크 강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지역 산업단지·도로망 - 지방권 광역교통 개선 - 재해예방·수자원 사업 등
건축 부문 (민간 중심)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3기 신도시 조성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민간 투자여건 개선
	- 대규모 산업단지·인프라 조성 - 생산·연구·개발·유통·서비스·주거·상업·업무시설 - 협력업체 및 배후시설 - 산업단지 내 건축수요 확대	-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대규모 건축투자 -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 - 상업·업무·생활 SOC - 도시 인프라 및 기반시설	-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공간 재정비 -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공급 - 노후주택 정비, 재개발·재건축 - 도시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 규제 합리화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금융·세제 지원 확대 -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 주거·상업·업무시설 수요 증가
예상 효과	건설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민간 인프라 및 주거·상업·산업시설 투자 증가로 건설투자 확대	건설투자 확대와 관련 산업 연계효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SOC 및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물류 네트워크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작성

전문건설시장

202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체 건설수주 증가 영향으로 하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양호한 상황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6년 7월 8.7조원, 8월 8.1조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및 최근 3년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체 건설수주 증가에 영향을 받으며, 하도급을 중심으로 계약액이 증가세
 - 다만,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경상금액으로 공사비 상승분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 2026년까지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전문건설업 회복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

2026년 3분기 전문건설공사 계약실적(잠정)

시 기	구분	추정 계약액(십억 원)	전년 동월비(%)	과거 3년 동월비(%)
'26년 7월	전문건설업 전체	8,711	+6.8	+2.5
	원도급공사	2,737	-10.5	-0.4
	하도급공사	5,974	+17.2	+3.9
'26년 8월	전문건설업 전체	8,075	+19.5	+11.6
	원도급공사	2,704	+21.8	+19.9
	하도급공사	5,371	+18.4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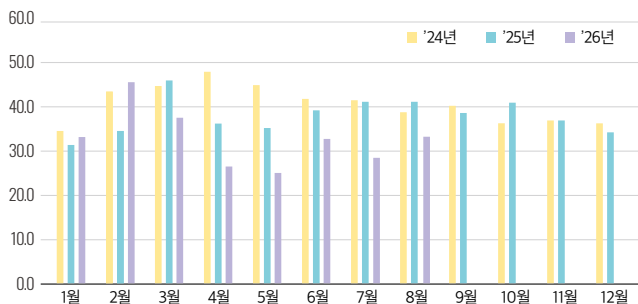
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26.7~'26.8)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202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최근 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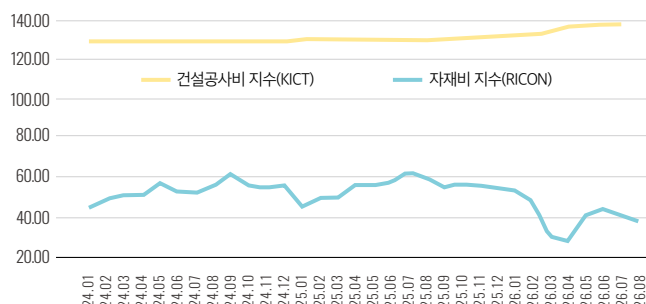
- 전문건설업체의 3분기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최근 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7월 28.9, 8월 33.6에 불과
 - 유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상승과 일부 품목의 생산차질에 따른 자재수급 우려가 부정적 심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 전문건설업체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공사수주의 감소,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원가의 상승, 기능인력의 수급 부족, 노조 관련 사안 등이며, 이는 단기간 해소가 쉽지 않은 과제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 비교 (최근 3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와 자재비지수 비교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월별 사전 전망 및 실제 평가치

구분	'25년 11월	12월	'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별 전망	36.0	34.2	33.3	44.4	56.2	36.3	33.1	34.9	39.6	32.1
월별 평가	37.5	34.6	33.8	46.3	38.1	27.1	25.7	33.1	28.9	33.6

202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업황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공사비 안정화가 경기회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업황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란전쟁에 따른 공사비 후폭풍의 안정화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
 - 그간 중동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향후 종전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대외여건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예상
 - 따라서 비용부담과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기간 내 뚜렷한 업황 개선은 어려울 전망
- 최근 양호한 건설수주, 건축허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금액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
 - 그러나,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입찰경쟁력 저하, 상호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중·하위 전문건설업 간 업역 갈등, 지방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정부의 각종 시장규제 등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부담 요인 역시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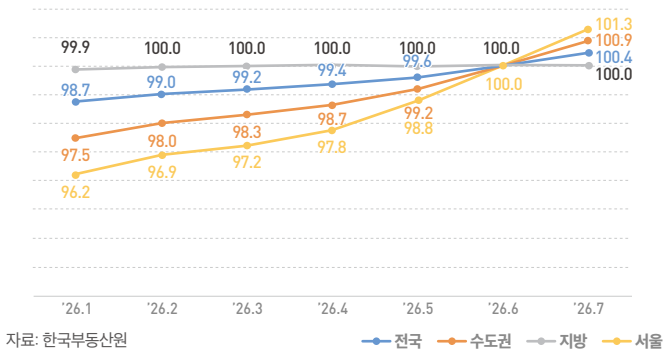
주택시장

2026년 3/4분기 주택시장: 서울·수도권 매매·전세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선행지표는 부진한 상황

- **(아파트 매매시장)** '26년 들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방과의 온도차가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
 - '26년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3으로 연초 대비 5.3% 상승한 반면, 지방은 100.0으로 연초 대비 0.1% 상승에 그쳐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
 - 8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의 시차로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며, 서울 중심의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주택착공 실적)**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전체 주택착공 실적은 '24년 일시 반등 후 '25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 공급 부족이 지속될 전망
 - 수도권의 착공실적 낙폭이 지방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수도권 착공실적이 '26년 들어 하락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양상
 - 전국적으로 공급 위축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신규 입주물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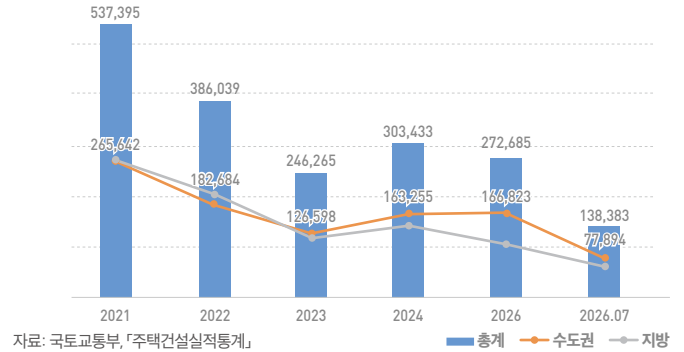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6.06 = 100 기준)



연도별 주택건설 착공 실적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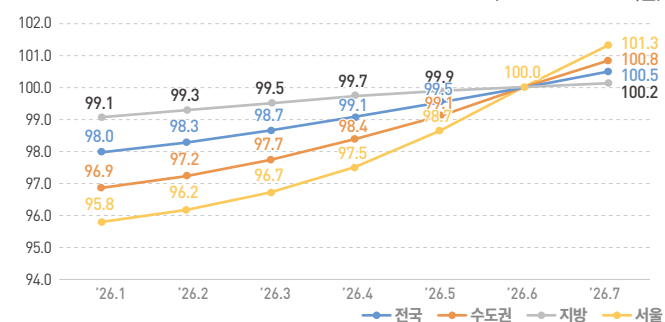


2026년 4/4분기 주택시장: 임대차시장 강세와 소비심리 회복이 맞물리며 주택 매수세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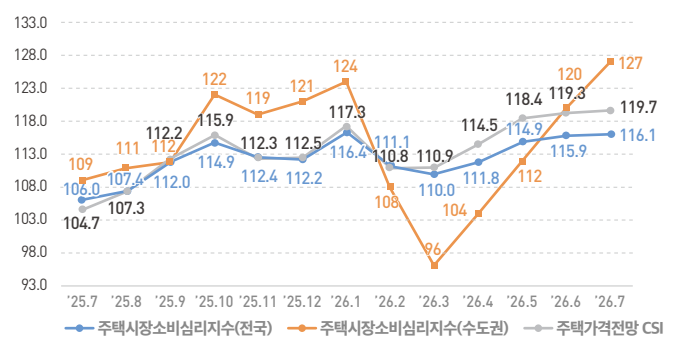
- **(임대차시장)**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품귀 현상이 심화
 - 지방 매매시장이 보합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지방을 포함한 전국에서 상승 흐름이 지속
 -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수 전환 지연, 정비사업 이주 수요, 신규 입주물량 감소가 겹치며 전세물건 부족이 가중
 -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27.5로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방을 포함한 전국이 기준선(100)을 상회하여 매매시장보다 임대차시장의 공급 부족 압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26년 1분기 다주택자 규제 및 세제개편 예고 이후 소비심리가 2분기 부터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 국토연구원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심리가 지속
 -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CSI 역시 '26년 1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장 전반의 상승 기대감이 확산된 양상

지역별 아파트 전·월세통합지수

(2026.06 = 100 기준)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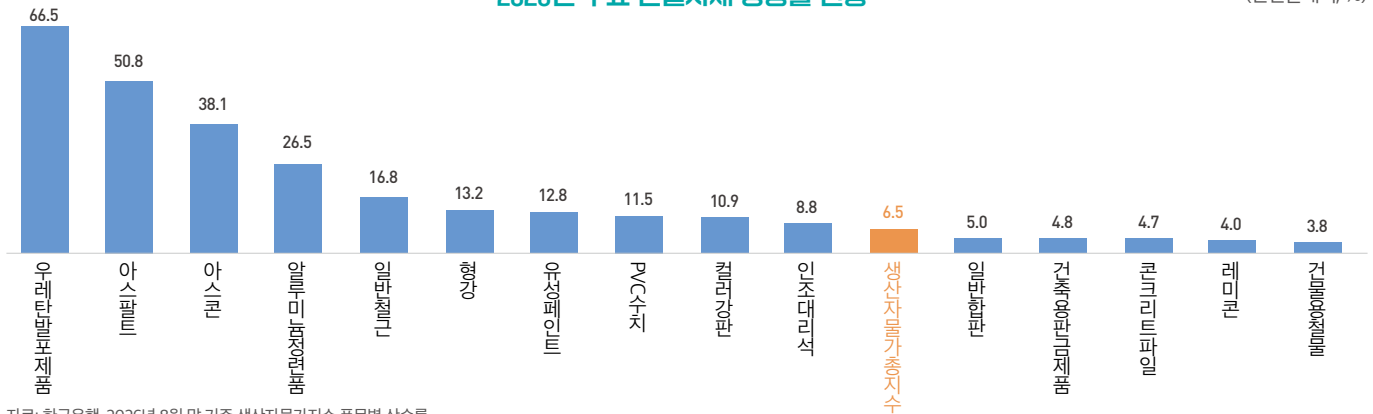
이슈 진단

이슈 1.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률과 향후 건설공사비지수 전망

- 주요 건설자재 상승률은 차별화가 뚜렷한 가운데, 석유화학 계열과 금속자재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 2026년 8월 기준 생산자물가 총지수 상승률이 6.5%인 데 비해 우레탄발포제품 66.5%, 아스팔트 50.8%, 아스콘 38.1% 등은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란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원재료 가격상승 영향이 반영된 결과
 - 금속자재 역시 알루미늄 관련 26.5%, 일반철근 16.8%, 형강 13.2%로 총지수를 크게 상회
 - 반면, 일반합판·건축용판금제품·콘크리트파일·레미콘 등 일부 품목은 총지수 상승률을 하회하여, 최근 자재가격 상승이 전 품목에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에너지·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자재에 집중되는 양상

2026년 주요 건설자재 상승률 현황

(전년말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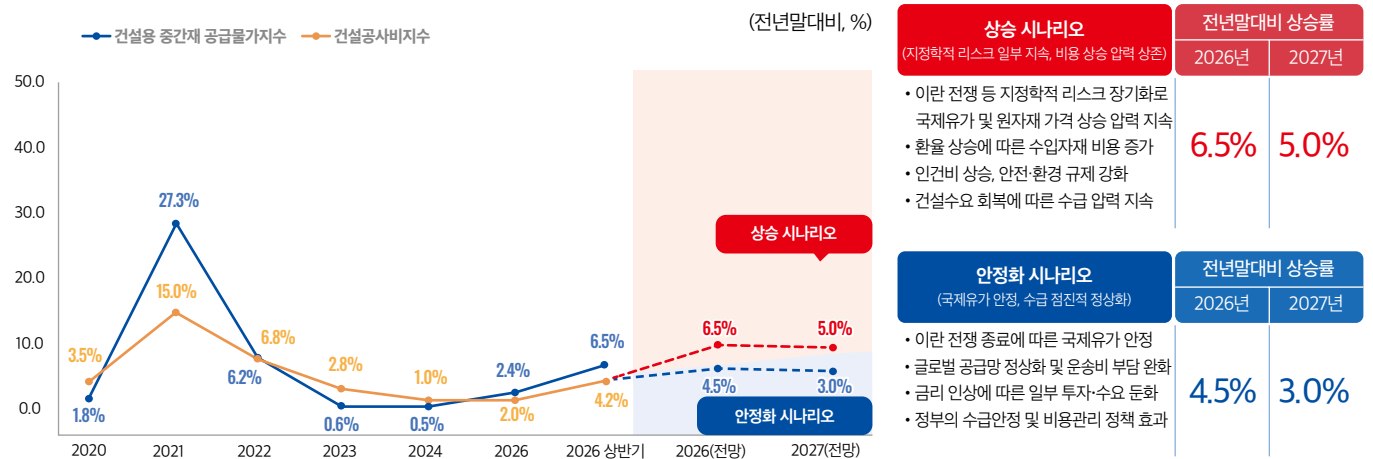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6년 8월 말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품목별 상승률

- 건설자재의 높은 가격 상승세가 공사비 부담으로 확산되면서 건설공사비지수도 올해 7월까지 전년말대비 4.4% 상승
 - 건설공사비는 2023~2024년 상승세가 둔화된 이후 2026년부터 다시 올라 비용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 특히,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상승에 더해 안전·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까지 지속되어, 향후 건설공사비의 상승 압력과 변동성 역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
 - 이를 반영한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환율 부담, 건설수요 회복에 따른 수급 압력으로 2026년 6.5%, 2027년 5.0% 상승이 예상
 - 반면, 안정화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유가 안정, 공급망 정상화, 정부의 수급·비용관리 정책 효과 등에 따라 상승률이 2026년 4.5%, 2027년 3.0%로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
- 이에 따라 향후 건설공사비는 과거 급등기보다 상승폭이 둔화하더라도, 높아진 비용 수준의 장기화 가능성이 상존
 - 따라서 건설경기 회복 과정에서도 공사비는 투자·착공 확대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원자재·환율 모니터링과 공사비 리스크 관리가 중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추이 및 전망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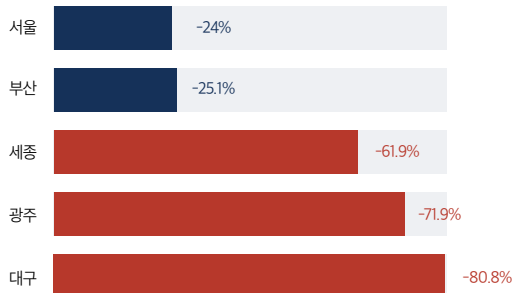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작성

이슈 2. 지방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시장 양극화

- 건설경기 부진은 전국적 현상이나, 그 충격은 지방과 중소 건설업체에 더욱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
 - 시장이 위축될수록 수요가 확실한 수도권으로 건설활동이 집중되면서 착공면적의 수도권 비중은 점차 확대
 - 실제로 2020~2026년 착공면적이 17개 시·도 전체에서 감소했으나 낙폭은 지방이 최대 3배 큰 상황
 - 또한, 2026년 상반기 건설업 폐업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방업체와 전문건설업에 집중
 - 이는 지방 건설시장 침체가 단순한 경기조정을 넘어 지역 간 건설수요 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 향후 건설경기 회복은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합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
 - 지방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보다 SOC의 안정적 발주, 미분양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수요 복원이 중요
 - 이러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회복이 지속되며, 지방 건설업체 폐업과 시장 양극화의 구조적 고착화 우려

지역별 건축착공면적 누적 증감률 (2020→2026)



자료: 국토교통부

2026년 상반기 건설사 폐업현황



자료: KISCON

이슈 3. 8·13대책 주택공급 확대가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점검

-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및 PF 시장 위축에 대응해 8·13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 135만호 착공 이행력 제고와 23만호+α 추가 공급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 **(현황)** 8·13대책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 등 23만호+α 추가 공급과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착공 누계실적은 6.5만호(전년동기대비 -0.7%)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26.9만호+α) 대비 24.2% 수준에 불과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 착공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누계실적도 6월 기준 전국 11.7만호(전년동기대비 -15.8%), 수도권 6.8만호(전년동기대비 -8.1%)로 지속 감소하고 있어, 착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예상
 - **(영향점검)** 8·13대책에 따른 PF 보증 규모 확대(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약 2.2배, 연평균 28.7조원) 및 조기 착공 인센티브(대출이자 보조, 기부채납·개발부담금 감면 등)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건설사의 사업 재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경우 시공사의 신규 수주 물량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인허가 실적 감소에 따른 중장기 수주 공백 우려, 8월 기준금리 인상(연 3.00%)에 따른 PF 조달금리 상승 압력, 지방 미분양 적체(전국 미분양의 72.2%가 지방에 편중) 등은 공급 확대 효과를 제약
 - 따라서 수도권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공급 동력 회복 여부가 대책 실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

(단위: 만호)

구분	연도별 공급 목표						연평균
	합계	2026	2027	2028	2029	2030	2026~2030
9·7대책(기준목표)	134.9	26.9	24.6	25.0	24.9	33.5	27.0
8·13대책(추가공급)	23.0+α	16.0(공공택지)+1.4~2.4(도심공급 확대)+5.9(민간지원 및 규제완화)+α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9.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8.1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행일 2026. 9.
발행인 김희수
발행위원 박선구, 이은형, 이호일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록 2007년 4월 26일
(제319-2007-17호)